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가 돌아간다는 내용으로 그림과도 거리가 멀며, 국산품 애용으로 연상이 확산되지도 않는다. 답 ①

8. 제시된 표에서 (가)는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나)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다)는 (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범위를, (라)는 (다)에 대한 구체적인 예에 해당하므로 개별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9. 그림 ①과 그림②는 외양만 가꾸는 현대인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④에는 한산한 서점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둘을 대비시키면서 정신적 수양을 소홀히 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림③에서 ‘독서는 마음의 양식입니다.’는 아나운서의 말을 통해 ⑤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답 ⑤

10.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하느냐?’는 논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이렇게 대립된 견해를 절충, 조절할 수 있는 제3의 입장을 찾아야 한다. 대립된 견해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두 입장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①과 ③은 반대의 입장과 같은 주장이다. ②는 논제와 무관하며, ④는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답 ⑤

11. ㉠은 ‘설거지’, ㉡은 ‘찌개’, ㉢은 ‘텔레비전’, ㉣은 ‘계시던’이 표준어이다. 답 ③

12. 주어진 조건을 고려할 때, ①이 가장 적절하다.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 보면 ‘계절감-봄내음’, ‘향토적 분위기-황톳길, 종달새’, ‘시 전체의 어조--것다’, ‘시각적·청각적 어조-푸르게 울어’가 된다. 답 ①

<현대시>

13. (라)의 ‘길’은 ‘화자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라)의 시적 화자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미련이나 아쉬움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그 길이 이상향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 아니다. 답 ④

14. ②는 시인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다. 그러나 (가)를 통하여 외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①③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괴로워했다.’에서 짐작할 수 있으며, ④는 시인의 불안과 고통을 형상화한 시어 ‘바람’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⑤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를 통하여 시인이 타인을 사랑하는 성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답 ②

15.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만 주목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므로 작품에 쓰인 시어나 운율, 표현법, 짜임 등 작품 요소들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①은 작품과 현실, ②는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④는 문학이 허구라는 전제를 부정하는 감상이며, ⑤는 독자의 태도에 주목하는 감상이다. 이렇게 볼 때, ①②④⑤는 작품 자체보다는 작품을 둘러싼 외적 조건, 즉 사회 현실이나 작가, 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외재적 접근 방법에 속하는 것이다. ③은 작품의 표현 방식에 주목한 것으로 내재적 감상에 속한다. 답 ③

16. ㉠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님을 사별한 슬픔의 정서가 담겨 있다. ㉢에도 님을 사별한 슬픔, 즉 정한(情恨)의 정서가 드러난다. 답 ③

답 ③

17. <보기>의 화자는 이제라도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가 가지 않은 다른 길에 미련을 두고 있는 (라)의 화자에게 들려 줄 말은 한 길을 꾸준히 가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②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보기>의 화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답 ②

답 ②

<사회>

18. 지문의 셋째 단락에 ‘문화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래 문화 수용은 무비판적인 단순한 모방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답 ②

답 ②

19.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적합성의 위기’란 외래 문화에 의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역작용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적합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의 혼재에서 오는 과도적 혼합 문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의 구체적인 예이다. 전통 한복은 활동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적합성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가), (나), (다), (라)는 정체성의 위기에 해당한다.

답 ⑤

답 ⑤

20. ㉔에서 ‘봉착하다’는 ‘맞닿뜨리다, 당면하다’의 뜻이다. 따라서 문맥적 의미는 원하지 않은 일의 결과와 부딪치게 되는 것이므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이고 피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㉔의 ‘위기를 맞아들이다’라는 능동적인 표현은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답 ㉔

답 ④

21. 넷째 단락에서 ‘정체성 회복과 문화적 전통의 확립은 문화적 적합성을 희생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화적 전통과 잘 통합되는 외래 문화의 선별적 수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남용되는 외래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도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한 예가 될 수 있다. ①③④⑤는 ‘외래 문화의 수용과는 거리가 멀다. 답 ②

답 ②

22. <보기>의 대화는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세대차로 인하여 통합성의 위기가 발생한 예에 해당한다. 이 대화에서 어머니는 세대간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답 ④

답 ④

<인문>

23. (가)에서 고자와 맹자는 성품을 물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나)에서 소크라테스와 제자가 참된 지식의 올바른 사용을 목수와 연장 등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비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답 ③

답 ③

24. (가)에서 고자가 말하는 ‘웅덩이’에 고인 물은 악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성품을 의미한다.

답 ①

답 ①

25. (나)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유용한 것을 가지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이다. 따라

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은 ‘참된 지식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26. 소크라테스는 목수가 연장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대중 음악의 감상에 적용하면, 대중 음악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다면 더 잘 감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27. ㉓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의 뜻이다. 이런 뜻을 지닌 것은 ㉔이다. 답 ③

<과학>

28. 셋째 단락의 끝부분을 통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목적이 유전자 변형 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답 ⑤

29. ‘제한 요소’는 DNA를 절단하는 가위의 역할을 하고 ‘리가아제’는 DNA를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절단과 결합의 관계로 맺어진 것은 ‘수술용 칼과 봉합용 실’이다. 답 ④

30. ‘조성(組成)’이란 ‘두 가지 이상의 요소나 성분으로 짜서 맞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맥적 의미는 ⑤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답 ⑤

31. 환경 운동 단체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유전공학자들에게 신중하게 연구에 임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은 ‘둘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이다. 답 ②

<고전 산문>

32. 주인공 이생은 벼슬도 구하지 않고 최씨와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나누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웅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답 ①

33. 이 글에서 최씨는 죽은 혼령이지만 이승에서 이생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귀신의 명부에 실려 있는 몸이라서 떠나야 한다면 이생과 헤어진다. 이로 볼 때, 글쓴이는 사람이 죽으면 잠시 이승에 머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답 ④

34.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② 또한 삼신산 같은 수명과 백 세 영화를 누리면서 원앙처럼 한평생을 보내겠다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①과 같은 상황에서 최씨가 불렀음직한 노래로 적절하다. 답 ②

35. <보기>처럼 최씨가 살아난다면 이 작품은 원작과는 다르게 행복한 결말을 갖는 작품이 된다. 그러나 ⑤의 지적처럼 최씨를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이 애초부터 전기성을 띤 비현실적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반응이며, 소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36.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뜻의 한자 성어로, 집 밖에도 나

가지 않고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었다는 부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뜻하는 한자 성어로는 ‘금실지락(琴瑟之樂)’이 있다.

답 ③

<사회>

37. 지문 중,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관해 언급한 두 번째 단락에서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 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답 ①

38. 이 글은 먼저 상호주의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대칭적 상호주의와 비대칭적 상호주의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시의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답 ③

39. ㉠‘셈’의 의미는 앞뒤문맥을 볼 때, 이해 관계를 따져 밝히는 일, 즉 이해타산의 의미이다. ㉠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는 ‘어떤 일의 속 내용’, ㉢은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 ㉣는 ‘사실이나 생활의 현편’, ㉤는 ‘수효를 세어서 헤아림, 혹은 계산’의 의미이다.

답 ①

40. ㉠은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는 한쪽에 일방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호혜적 교환 관계의 예가 될 수 없다.

답 ②

41.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 등 비시장적 요소는 반시장적 행위들을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하기 어렵기에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론을 편다면 반시장적 요소는 비시장적 요소 없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은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진술 자체가 오류이다. ㉡는 반론을 위한 논거가 아니라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논거가 된다. ㉢은 ㉠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배경은 비대칭적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원칙이 통용되고 있으므로 비시장적 요소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는 오히려 ㉠의 논거로 적절하다.

답 ⑤

<고전시가>

42. (가)는 사랑하는 임이 떠나려 하자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한을, (나)는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다)는 이별한 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라)는 곁에 없는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네 작품 모두 이별에 따른 시적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답 ①

43. (가)는 임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에서 간절히 붙잡고 싶었으나 붙잡으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선선히 떠나보내면서 임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라)는 이미 임과 이별하고 나서 소식조차 없는 임을 원망하는 내용이다. (가)에서 (라)로 상황이 변하고, (가)와 (라)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임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선히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태도가 드러난 ㉤가 가장 적절하다.

답 ⑤

44. ㉠의 바로 앞 부분은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의 바로 뒷부분은 ‘떠나보내기 싫은 입을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니 가자마자 곧 돌아오십시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을 전후하여 화자의 심리가 돌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입을 붙잡지 못한 이유가 들어가야 입을 순순히 떠나보내겠다는 뒷부분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답 ②

45. <보기>에서 밑줄친 ‘테이프에 녹음한 노래’는 글쓴이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소재이다. (나)는 화자가 입에게 바치는 지순한 사랑을 뿔뿔로 구상화시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입에게 바치는 순정만은 뿔뿔처럼 항상 입의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서 시적 화자가 자신이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소재는 ‘뿔뿔’이다. 답 ①

46. (다)에서 ‘고개’는 바람과 구름은 물론이고 매들도 쉬어 넘는 고개로서, 입과 나(시적 화자)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다. (라)에서 ㉠‘은하수’도 견우와 직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서로 그 의미가 유사하다. 답 ①

<현대소설>

47. 제시된 <보기>를 먼저 보고 그에 따라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다. 건지산에 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야기된 갈등으로 인하여 외할머니는 큰방 출입을 하지 않게 되고, ‘나’ 또한 그렇게 된다. 그러나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배웅해 주면서 갈등이 해소되는데,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은 바로 외할머니가 큰방을 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답 ④

48. ㉠에 나타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화 양상을 보면, 먼저 할머니가 외할머니의 노고에 감사를 하고, 외할머니는 외할머니는 겸양의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몸 걱정을 한다. 그러지 할머니가 다시 한번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와 같은 대화의 양상을 고려할 때, 밑줄친 부분에는 겸양의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답 ①

49. ㉠은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작품 전체를 이끌어 가는 배경과 관계가 깊으며, 불신과 갈등의 역사인 6,25전쟁의 종결을 상징한다. 이러한 결말 처리는 작품에 여운을 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50. ‘이제와 돌이켜보니’라는 구절은 과거에 대한 회상과 추측의 심리를 반영한 말이다. ㉠은 서술자가 할머니의 행동을 회상하면서 할머니의 심리를 추측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가 적절하다. 답 ④

51. <보기>에서 밑줄친 부분은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문학의 특수성은 한국 역사나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연결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내용은 한국의 역사적 상황, 제도, 가치관, 독특한 정감, 등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에 대해 언급한 ㉡는 어느 나라의 문학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편성에 가깝다. 답 ②

<예술>

52. 셋째 단락 첫 부분에 보면 영화는 같은 크기의 프레임에 맞추어 내용물을 배치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답 ②

53.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세계’란 어떤 틀을 통해 바라본 세계라는 뜻이다. 그러나 배 위에서 등대를 바라보는 보는 것은 시야가 탁트인 상태이므로 어떤 틀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①③④⑤은 각각 ‘유리창, 천체 망원경, 동굴, 손거울’ 등의 프레임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본 것이다. 답 ②

54. ‘소네트’란 영화의 엄격한 형식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비유한 말이므로, ㉠은 형식과 내용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형식과 새로운 내용의 결합이 즐거움을 높여 준다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답 ④

55. 이 글에서는 ‘프레임’이라는 영화의 형식적 단위를 바탕으로 통합 과정, 제약성, 예술성 등을 고찰하고 있을 뿐, 영화 감상시 배우의 대사나 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답 ④

<수필, 희곡, 시나리오>

56. 이 작품에서 인물들이 쓰고 있는 의문형 대사는 인물들 간에 나누는 대사일 뿐 관객들의 응답을 요구하는 대사가 아니다. 답 ③

57. ㉠‘없습죠’는 상대 높임법 가운데 아주 높임인 ‘합쇼체’에 해당한다. ①의 ‘어서 읍쇼’도 ‘합쇼체’에 해당한다. ②③⑤는 두루 높임인 ‘해요체’, ④는 예사 낮춤인 ‘하계체’에 해당한다. 답 ①

58. ㉠은 유상 상속자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으며, 야망도 없고 법률 상식도 없는 충직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이 허울만 지닌 자를 선정하라는 것이다. ‘꼭두각시’는 남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에서 말하고 있는 재산관리인과 같은 성격의 인물이다. 답 ④

59. ‘그야 내 사위더러 쓰래면 되지만……’이라면서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 이는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이다. 이는 이중생이 사위인 송달지의 성격을 알고 있으므로 그에게 사망 진단서를 쓰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망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조금 말성이면서’와 같이 말을 다 끝맺지 못하는 동작 내지는 표정을 나타내는 지시문이 적절하다. 답 ①

60. 연극은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 전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물 간의 대화나 독백, 심지어 다른 인물에게 전달되지 않는 말조차도 관객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변호사의 계락을 관객들이 눈치 못 채게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인물 간의 대화를 관객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작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